



중앙일보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여권엔 절제 야권엔 혁신, 민심의 명령

일방적 승자 허락 안 한 6·3 민심 선거 직전까지 입법 독주하던 여당 최대 승부처 서울 포함 4곳서 패배 국힘 주류와 대립각 오세훈·한동훈 극적인 승리로 장동혁 체제에 경종

view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승자인 동시에 패자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석권해 외견상 화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상징성이 남다른 서울시장과 당 차원에서 공을 들였던 대구·경남을 비롯해 경북까지 4곳에서 패해 내용 면에선 상처가 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시·도지사가 12명에서 4명으로 급감하며 크게 패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예상 밖 선전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원래 민주당이 가졌던 3곳(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영남 거점인 부산·울산 시장 선거에서 패하며 그간 누려온 영남 기득권이 도전받게 됐다.

윤왕희(정치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민심이 명확하고 절묘하게 여야 모두에 경고했다”며 “집권 여당을 향해선 오만에 대한 절제를, 비상계엄

이후 갈피를 못 잡는 보수 야권을 향해선 정상 상태로의 혁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여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간 달려왔다. 여권은 마치 야당이 없는 것과 같은 거침없는 단독 질주를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선거 전략을 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공소취소 특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다 논란이 선거판을 흔들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조롱 논란에 적극 개입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며 직접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관권 선거” 반발에도 지난달 26~27일 이 대통령이 부산·창원을 찾은 건 “견제 심리를 자극해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됐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 일방통행에 대한 공포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직접적 트리거가 됐다. 이 대통령이 연초부터 X(옛 트위터)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축소 법안까지 발의한 건 서울 유권자의 위기감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겪고도 ‘윤 어게인’이라는 황당한 구호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도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

한영익·이찬규 기자
▶ 3면 ‘민심’으로 계속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다시 뛰는 오세훈 16시간에 걸친 개표에서 접전 끝에 간발의 차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따돌리고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오세훈 서울시장의 4일 오전 캠프 사무실을 나와 서울시청으로 뛰어가고 있다. ▶ 관계기사 3면 [연합뉴스]

선거예산 더 받고 용지는 덜 찍었다 정신 나간 선관위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길의 확산 일로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14개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표 방송이 송출되는 도중에 투표해야 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소동도 일어났다. 이현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노태약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개표 중단과 선거 재실시를 요구했다. 송인석 원내대표는 “여당에 선관위에 대한 긴급 국정 조사를 제안했다”며 “특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이날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까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 선관위는 이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이아미·류효림 기자

▶ 8면 ‘선관위’로 계속

홍명보호 마지막 모의고사, 이동경이 풀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출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4일 마지막 모의고사로 치른 엘살바도르와의 친선경기에서 공격수 이동경의 프리킥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전(5-0승)을 포함해 미국에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오는 6일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할 예정이다. ▶ 관계기사 18면

6·3 지방선거 지면 안내 | 교육감 무효표만 109만표 ▶ 2면 | 여당도 야당도 웃지 못했다 ▶ 4·5면 | 카토그램으로 본 6·3 ▶ 10면

INSIDE
환율, 야간거래서 1540원대 1600원대 전망까지 나왔다 치솟는 환율 비상 ▶ B3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

미 국방부 보증 '월 180만원' 평생 연금으로 바꾸십시오 !!

현금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값이 상승으로 통장 잔고만 갇혀있는 노후는 시한폭탄입니다. 가만히 둔 현금을 당장 '매달 180만 원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로 바꾸십시오. 원금은 건물에 안전하게 묻어두고, 평생 마르지 않는 월세만 꺼내 쓰는 것이 진짜 부자의 노후입니다.

■ 왜 '평택 미군 장교숙소' 인가?
국가(미 국방부)가 월세 직송·세입자 개인과 실랑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연체율 0%, 미납 리스크 0%를 자랑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월세: (전시국가 프리미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년 7%씩 인상되는 주둔비를 바탕으로, (과거 1년전) 153만 원이던 월세가 현재 1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대안: 중부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는 아파트 대신,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자유롭고 세금 걱정 없는 '전차 자산(오피스텔)'로 갈아타야 합니다.

■ 70대도 가능한 대출 & 자녀의 반대를 제압하는 필살기
대출 절벽 돌파: 나이와 무관하게 미 국방부의 '확정 월세' 자체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100% 임대완료, 분양 계약 하실분 모집. 월세 180만원 바로지급, "예상이 아닌 현실" 민고 확인하세요!

"채금" 자체가 틀립니다. 미 국방부가 월세 지급! 전시국가 최고혜택의 월세

마감임박 | 167세대 | 100% 임대완료

대한 토지 신탁 관리 오피스텔 (토지·건물) 동기분양 1가구2주택, 중부세 제외

"이건 진짜입니다"

송탄 로데오거리는 '제2의 이태원' 이라고 불린다.

될 수 있습니다. 자산 이동의 당당함: 무작정 반대하는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 400~500만 원씩 드는 내 간병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훗날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가장 안전한 '자산 이동' 이자 몇몇만 노후를 위한 필수 방어책입니다.

■ 제주도에 살아도 OK!
'완벽한 오토 매니지먼트' 동네 원룸 임대인이 아닙니다. 상주하는 전문 에이전시가 세입자 모집, 시설 보수, 달리 환전 및 입금까지 100% 대행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더 지을 땅이 없는 '장교 전용 호텔급 요새'
(준공 완료)부대 주변 상업지는 개발 제한으로 신축 부지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미군 장교들이 줄 서는 희소성 끝판왕입니다.
- 규모 및 스펙: 지하 5층~지상 13층 (총 167세대)
- 미군 대형 SUV도 거뜬한 자주식 182대 주차
- 최선호 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 (분양 44평형 / 실평수 23평) / 풀옵션 빌트인
- 투자 현황: 건물 준공 완료! 임대 100% 완료! 계약 즉시 다음 달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금"이 다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실제 건물에 있는지 확인 (준공완료)
미군 주택과와 쓴 계약서 확인 (임대100% 완료)
매달 들어온 입금내역 확인 (월180만원 통장 확인)
망설이는 시간에도 당신의 월세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격 특별 프로모션
통화 후 방문 계약 시 마지막 가격지원 혜택 제공!
분양 및 방문 문의: 1844-1456
※ 주말, 공휴일도 근무합니다